

Studio DAC:

아트 클래스 – 토크

[TEXT-읽기] 비평

사는 재미와 문학 비평: 인생은 비평가처럼

박혜진

일시

2025. 12. 12(금) 오후 7:30-9:00

장소

Studio DAC

“별이 총총한 하늘이 갈 수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들의 지도인 시대, 별빛이 그 길들을 훤히 밝혀 주는 시대는 복되도다.”

게오르크 루카치의 『소설의 이론』은 이렇게 시작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대”란 전근대의 인간이 외부의 확고한 질서 속에서 자신의 삶을 이해할 수 있었던 시기를 가리킨다. 세계와 자아, 행위와 의미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어 진리의 길과 예술의 길이 하나의 중심을 향해 모였던 때.

근대에 이르며 그 별자리는 사라졌다. 인간은 더 이상 외부에서 길을 찾을 수 없으며,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 루카치의 비유가 말하는 바는 명확하다. 밤하늘의 별빛으로 이루어진 지도는 더 이상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지도는 우리 안에 있으며, 다시 그려져야 한다. 그 지도를 그리는 행위가 바로 ‘비평’이다.

지도는 어떻게 그릴까. 김욱동의 『광장을 읽는 일곱 가지 방법』은 하나의 작품을 다양한 관점으로 읽는 방식을 보여 주며 ‘비평적 읽기’가 ‘그냥 읽기’와 어떻게 다른지 알려준다. 그냥 읽기는 소설을 하나의 ‘이야기’로 본다. 반면 비평적 읽기는 소설을 하나의 ‘텍스트’로 바라본다. 스토리와 텍스트는 명확히 구분된다. 소설을 단순한 이야기로만 읽으면 그것은 그저 ‘얘기’에 머문다. 그러나 비평적 시선으로 읽기 시작하는 순간 작품은 분석의 대상, 즉 ‘텍스트’로 변환된다. 분석은 지루함이 아니라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지적 기쁨이다. 더욱이 텍스트는 문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영화, 패션, 일상의 사물까지 모두 해석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순간 세계 전체가 읽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두산아트센터

교육 프로그램

2025

겨울

두산아트센터 투어

두산아트스쿨: 미술

Studio DAC: 아트 클래스

Studio DAC POST

텍스트로 읽기 시작하면 소설은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구조와 의미의 네트워크를 지닌 대상으로 확장된다. 중요한 것은 소설이 원래부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독자가 ‘그렇게’ 읽을 때 작품이 비로소 ‘그렇게’ 열린다**는 점이다. 텍스트는 하나의 의미로 고정되지 않는다. 읽기의 방식이 달라질 때마다 작품의 세계는 새롭게 열린다. 각각의 관점은 저마다의 ‘내적 별자리’를 만들고, 독자는 그 다양한 지도를 통해 작품과 세계를 다른 빛으로 바라보게 된다.

비평은 작품을 해석하는 기술을 넘어 삶을 해석하는 태도가 된다. 비평적 시선은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던 사물과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일상에 작은 결들을 만들어 낸다. 명하니 살아가는 삶과 세계를 읽으며 사는 삶의 차이는 크다. 비평의 능력을 갖춘 사람은 작품을 읽을 때뿐 아니라 삶에서도 끊임없이 자기만의 지도를 그리며 의미를 찾아가는 존재가 된다. 루카치가 말한 “사라진 별자리”를 다시 그리는 일, 그것이 바로 비평의 역할이자 비평적 삶의 의미다. 이제 『퍼니 사이코 픽션』을 통해 비평적 읽기의 실제 모습을 함께 살펴보자.

- 게오르그 루카치 『소설의 이론』 (문예출판사, 2007)
- 김욱동 『광장을 읽는 일곱 가지 방법』 (문학과지성사, 1996)
- 박혜진 『퍼니 사이코 픽션』 (클레이하우스, 2025)

박혜진(문학평론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출판사 민음사에서 일해온 문학 편집자이자, 201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비평 활동을 시작한 문학평론가이다. 비평집 『언더스토리』와 서평집 『이제 그것을 보았어』, 소설 해설집 『퍼니 사이코 픽션』을 출간했다. 2018년 젊은 평론가상, 2022년 현대문학상(평론),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2024년 김종철시학상(평론)상 및 한국출판편집자상 특별상을 수상했다.